

매체의 특징에 따른 컨셉 앨범의 분류

A Study on Categorization of Concept Albums According to Features of Media

손 동 욱, 이 승 연*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Dongwook Son, Seungyon-Seny Lee*
Sangmyung Univ., Sangmyung Univ.*

요약

컨셉 앨범(Concept Album)은 「The Beatles -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The Who - Tommy」 등이 발매된 196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장르적 발전과 형식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컨셉 앨범의 발전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컨셉 앨범의 시대적 구분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따라 각 시대의 컨셉 앨범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2000년대 이후 다양해지는 컨셉 앨범에 대한 분석 기틀을 마련한다.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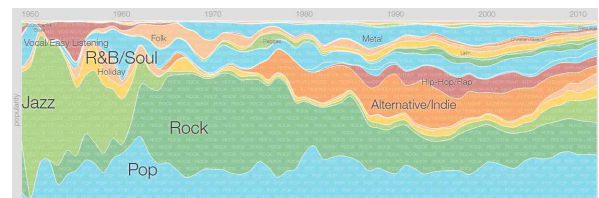
1. 연구 배경과 목적

컨셉 앨범(Concept Album)은 1960년대 록 오페라(Rock Opera) 형식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장르와 형식으로 계속 해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컨셉 앨범의 연구는 대부분 초창기 형식인 록 오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나의 앨범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컨셉 앨범 자체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형식의 컨셉 앨범을 아우르는 분류 기준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컨셉 앨범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컨셉 앨범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컨셉 앨범의 초기 형태인 록 오페라가 성행한 1960년대로부터 현재 2018년까지 발매된 컨셉 앨범을 연구 범위로 한다. 다만 컨셉 앨범의 범주는 명확히 정의할 수 없고, 일부 앨범은 컨셉 앨범 여부가 논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논문, 책, 매거진 등에 2회 이상 컨셉 앨범으로 소개되었거나 아티스트 본인이 컨셉 앨범으로 직접 언급한 앨범 중에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컨셉 앨범은 주제 혹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앨범을 의미한다. 컨셉 앨범도 하나의 음악 앨범이기 때문에 컨셉 앨범의 발전은 음악의 발전과 맞물려있다. 컨셉 앨범 연구 대상이 되는 1960년대부터의 음악 장르 변화 양상을 보면, 1960~70년대에는 록(Rock) 장르, 1980년대에는 메탈(Metal) 장르, 1990년대에는 얼터너티브/인디(Alternative/Indie) 장르, 2000년 이후에는 힙합/랩(Hip-Hop/Rap). 팝(Pop) 장르가 성행한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1. Google Music Timeline

표 1. 시대별 대표 음악 장르

시대	대표 장르
1960~70년대	록
1980년대	메탈
1990년대	얼터너티브/인디
2000년 이후	힙합/랩, 팝

1.2 컨셉 앨범과 음악 장르의 상관 관계

컨셉 앨범을 시대별로 살펴보다도 위와 같은 장르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70년대에는 「The Beach Boys - Pet Sounds」(1966), 「The Beatles -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1967), 「Pink Floyd - The Wall」(1979) 등의 록 장르 컨셉 앨범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Queensrÿche -

II. 본론

1. 컨셉 앨범의 시대적 변화 양상

1.1 음악 장르의 시대적 변화 양상

Operation: Mindcrime」(1988), 「Dream Theater - Metropolis Part II: Scenes from a Memory」(1999)등의 메탈 장르 컨셉 앨범이 많이 발매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Blur - Parklife」(1994), 「Radiohead - OK Computer」(1997)등의 얼터너티브/인디 장르 앨범이 있었다. 2000년 이후에는 「Kendrick Lamar - Good Kid, M.A.A.D City」(2012)와 같은 힙합/랩 장르, 「Taylor Swift - 1989」(2014)와 같은 팝 장르의 앨범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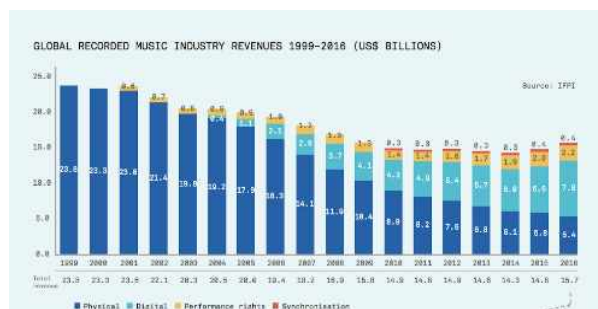
2. 컨셉 앨범의 시대적 분류 기준

2.1 컨셉 앨범 시대적 분류 기준의 요건

보편적인 대중음악과 같이 컨셉 앨범도 장르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컨셉 앨범의 곡들은 하나의 음악이면서 동시에 이야기와 주제를 구성하는 플롯이다. 음악적 특징과 구조적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컨셉 앨범을 음악적 장르로만 구분하게 되면 컨셉 앨범만의 요소인 구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컨셉 앨범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서 시대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2.2 매체와 예술의 상관 관계

예술 분야는 본질적으로 매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술을 전달하는 매체의 형태나 성질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 그 예술의 내용이 영향을 받고 매체에 적합한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문학은 물론이고 사진[1], 공연[2], 영화 등의 분야에서도 매체의 발전에 따라 예술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2. 음악 산업 수입 통계

2.3 매체와 음악의 상관 관계

음악 분야에서도 매체는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개별 곡보다도 앨범 단위로서의 음악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매체의 변화가 곧 감상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음악 감상 매체는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의 축음기로부터 LP, 카세트 테이프, CD등으로 발전하였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는 MP3 등 디지털 포맷이 보편화 되었다.[3] 결과적으로 음악 감상 환경에는 디지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불연속성’, ‘무작위성’이 투영되었다.

2.4 디지털 시대의 컨셉 앨범

디지털 시대의 컨셉 앨범에는 디지털 포맷의 특징인 ‘불연속성’과 ‘무작위성’이 존재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하나의 곡 혹은 앨범을 연속해서 감상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곡과 곡 사이를 건너뛴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의 곡 내에서도 건너뛰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하나의 앨범 단위로 음악이 소비되었던 것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작위적으로 음악이 소비된다. 앨범에 수록된 순서가 아니라 다른 순서로 재구성해 음악을 들을 수도 있으며, 여러 아티스트의 곡을 이용해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음악의 소비 단위도 변화되는데, 앨범 단위로 소비되었던 음악이 디지털 시대 이후에는 곡 단위로 유통, 판매, 소비된다.

전통적인 형식의 컨셉 앨범에서는 오페라 형식으로 연속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명확히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4] 당시에는 컨셉 앨범이라는 개념이 오페라의 형식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Coldplay - Mylo Xyloto」(2011)의 경우에는 그와 다르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화책, 미술, 컨셉 앨범 등에 나누어 재구성함으로써 오히려 이야기를 모호하게 만들고, 다른 매체의 창작물을 통해서만 스토리를 이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5]

Ⅲ. 결론

컨셉 앨범을 나누는 분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컨셉 앨범의 기획과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매체의 변화인 것을 감안할 때, 매체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음악의 전달 매체를 크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로 나눌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컨셉 앨범의 분류 또한 ‘디지털 시대의 컨셉 앨범’과 ‘아날로그 시대의 컨셉 앨범’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컨셉 앨범에는 디지털 매체의 특징과 동일한 ‘불연속성’, ‘무작위성’이라는 특징이 함께 수반되어 나타나게 된다.

■ 참고 문헌 ■

- [1] 박종현 “Study on the Expression and Thinking Method of Digital Photo Image with Empahsis on the Environmental Change in Media and The Meaning of Art Works”, 부산대학교, 2009.
- [2] 황세란 “영상매체를 통한 무용예술의 대중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9.
- [3] 조경원 “Advent of digital media and changes in musical situations”, 한국예술종합학교, 2007.
- [4] Gareth Shute, Concept Album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3.
- [5] Lori Burns “The Concept Album as Visual-Sonic-Textual Spectacle: The Transmedial Storyworld of Coldplay’s Mylo Xyloto”, University of Ottawa, 2016.